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 연구

박대복,* 강우규**

|| 차례 ||

1. 서론
2. 요괴퇴치의 양상과 초월성의 층위
3. 요괴퇴치담의 인물성격과 작품전체와의 상관성
4.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소현성록』에 요괴퇴치담이 세 번에 걸쳐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요괴퇴치의 양상과 초월성의 층위를 분석하고 요괴퇴치담의 인물 성격과 작품전체와의 상관성을 살펴 요괴퇴치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은 ‘신성(神聖)’과 ‘신이(神異)’, ‘괴이(怪異)’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신성’은 현성의 성인군자적 성격과 연관되고, ‘신이’는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과 관련되며, ‘괴이’는 요괴의 성격과 관련됨을 논의하였다.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과 작품 전체와의 상관성은 요괴퇴치담의 현성과 운성의 초월적 성격이 작품 전반에 드러난 현성의 성인군자적 성격과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을 종합적이며 압축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초월성과 인물성격의 관계는 비단 『소현성록』 한 작품만이 아니라, 유교적 세계관과 초월적 세계관을 함께 보여주는 가문소설의 인물성격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초월성(超越性), 신성(神聖), 신이(神異), 괴이(怪異), 성인군자(聖人君子), 영웅호걸(英雄豪傑)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서론

『소현성록』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작되어 유통된 연작형 가문소설이다. 『소현성록』은 소현성 중심의 서사를 담은 <소현성록>과 그의 아들들인 소운성, 소운명 중심의 서사를 담은 <소씨삼대록>이 연작되어 전하고 있다. 이 중 전편인 <소현성록>은 소현성의 일대기를 순차적으로 서술하는 형식을 지니고, 후편인 <소씨삼대록>은 소현성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¹⁾

『소현성록』은 김기동²⁾, 이수봉³⁾, 최길용⁴⁾에 의해 내용이나 이본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언급된 이후 박영희⁵⁾, 임치균⁶⁾, 문용식⁷⁾ 등에 의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가문소설의 효시로서 소설사적 가치가 밝혀짐에 따라 최근까지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작품이다.⁸⁾ 이러한

-
- 1) 이후 본 논문에서는 전편의 편명과 구별을 위해 전편과 후편을 합한 작품명으로서 『소현성록』으로 통일하여 표시한다.
 - 2)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 3)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동아논총』15, 동아논총편집위원회, 1978
 - 4) 최길용, 『연작형고소설연구』,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1989.
 - 5)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 6)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 7) 문용식, 『가문소설의 인물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5.
 - 8) 최근의 『소현성록』에 대한 연구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語文學』108, 한국어문학회, 2010 ; 정선희, 「17,18세기 국문장편소설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연구」, 『한국고전연구』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 장시광,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文學研究』28, 우리문화회, 2009 ;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古小說 研究』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1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본전(本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연구에서 『소현성록』은 소현성의 일생을 통해 이상적인 사대부상을 보여 주고, 다처제하의 처처갈등에서 당시 여성의 현실 상황과 이상적 여성상을 드러내며, 이 둘을 아우르는 엄격한 사대부의 가문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야기 전체를 지배하는 삶의 원리인 유교적 도덕론”⁹⁾을 통해 “유교 질서의 확립과 오류법도, 교양교육의 실현 등 예교의 실천논리를 강조한”¹⁰⁾ 작품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소현성록』에 ‘불어괴력난신(不語怪力亂神)’에 위배되는 요괴(妖怪)가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유교사상을 수용한 가장 대표적 작품이라 평가되었으며, 주인공인 소현성 또한 유학자로서의 전형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분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현성록』에는 세 번에 걸쳐 요괴퇴치담(妖怪退治談)이 나타나며, 소현성과 그의 아들인 소운성이 초월능력을 발휘하여 요괴를 퇴치하는 것이다. 즉 유교사상의 관점에서는 괴력난신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금기시하는 데 반하여 『소현성록』에서는 비록 퇴치의 대상일지라도 요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괴퇴치의 과정에서는 소현성과 소운성의 초월 능력이 각각 다르게 표출된다. 중심인물들과 대결하는 요괴 역시 그 초월 능력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점들은 요괴퇴치담이 ‘단순한 삽입담’¹¹⁾이 아니라, 인물들의 성격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중요인물의 성격이 요괴를 퇴치하는 각각의 초월 능력과 방법에 집약되어 표출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작중인물의 성격 파악은 곧 작품의 전체적인 서사와의 상관성을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9) 박영희, 위의 논문, 246~247쪽 참조.

10)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178~183쪽 참조.

11) 박영희, 앞의 논문, 147~148쪽 참조. 여기에서는 요괴퇴치담을 外遊 화소의 단순한 삽입담 정도로만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소현성록』에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는 요괴퇴치담의 구체적인 양상을 분석하여, 요괴를 퇴치하는 초월 능력과 인물 성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소현성록』의 전체적인 서사에서 요괴퇴치담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공자의 ‘불어괴력난신’에 대한 『소현성록』과 고전 서사문학과의 변별적 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요괴퇴치의 양상과 초월성의 층위

인간이 지닌 능력의 한계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극복 혹은 변화될 때, 이를 초월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사회의 현실과 자연의 여러 변화 현상도 신비스러운 힘의 작용에 의한다는 인식 또한 초월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¹²⁾

이러한 초월성은 세계관의 관점에 따라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한다. 긍정적 관점은 유교적 세계관에 부합되며, 요괴를 퇴치하는 중심인물들의 초월성과 관련된다. 부정적 관점은 괴이적(怪異的) 세계관과 관련되며, 요괴가 지닌 초월능력과 관련된다. 그리고 요괴퇴치담은 기본적으로 중심인물이 요괴와 대립하여, 이를 퇴치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소현성록』에는 이러한 요괴퇴치담¹³⁾이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중심인물과 요괴의 초월능력 및 그 대립과정의 각각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2) 박대복, 「超越性的 二元的 認識과 天觀念」, 『語文學』75, 韓國語文學會, 2002, 172쪽.

13) 『소현성록』에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난 요괴퇴치담은 각각 소현성의 요괴퇴치담과 소운성의 요괴퇴치담, 소현성과 아들들의 요괴퇴치담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순서대로 요괴퇴치담[1], 요괴퇴치담[2], 요괴퇴치담[3]으로 지칭한다.

1) 소현성의 요괴퇴치와 초월성의 층위

요괴퇴치담[1]은 소현성의 세 번에 걸친 혼인과 그로 인한 갈등이 모두 해결된 이후 유산(遊山)하는 도중에 나타난다. 현성은 칠왕(七王), 팔왕(八王) 및 천우들과 함께 자운산 동쪽으로 유람을 떠나고, 그 도중에 요괴를 퇴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1 소현성이 일행과 유산하는 도중에 잠시 떨어지게 되고, 일행들이 먼저 사찰에 들렀을 때에 주지승의 제자가 요괴에 홀려 고통 받고 있다.

-2 소현성이 도착하기 전에 요괴는 성인(聖人)이 온다며 물러난다.

(나)-1 소현성은 일행과 다시 유산하다가 오래된 버드나무에 요괴의 소혈이 있음을 알고 함께 온 사람들을 돌려보낸다.

-2 소현성이 나무에 글을 쓰자, 천지가 진동하며 벽력이 떨어져 지네 요괴가 죽다.

요괴퇴치담[1]의 서사단락은 위와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는 요괴가 소현성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이고, (나)는 소현성이 요괴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가)-1에서 소현성은 유산하는 도중에 일행들과 잠시 떨어지게 되고, 일행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사찰에 들렀을 때에 주지승의 제자가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주지승은 제자의 고통이 요괴에게 홀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주지승이나 칠왕, 팔왕 등 일행들은 요괴의 악행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뿐이다. 요괴가 사찰이라는 종교적 신성공간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요괴의 초월능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2를 보면, 요괴의 초월능력이 소현성에게는 무력해짐을 알 수 있다. 요괴는 소현성이 온다는 것을 알고 그가 도착하기 전에 도망치듯 스스로 물러난다.

이때 요괴는 “이제 성인(聖人)이 오시니 내 어찌 있겠는가? 금일까지는 내 소혈로 돌아가리라”¹⁴⁾라는 말을 한다. 요괴의 말은 소현성이 성인에 비할 만큼 높은 덕성(德性)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는 대면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사불범정(邪不犯正)’¹⁵⁾이라는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관념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나)-1은 소현성이 요괴의 소혈을 발견하는 부분이다. 소현성 일행은 수행승과 함께 다시 유산하다가 수천 년 묵은 버드나무를 발견한다. 현성은 그 나무에 요괴가 있음을 미리 알고 일행들을 돌려보낸다. 그리고 (나)-2에서와 같이 일행을 돌려보낸 소현성이 나무에 글을 쓰자 자욱한 운무가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더니 한줄기 벽력이 떨어져 그 나무가 산산조각이 나며 지네 요괴가 죽는다. 그리고 소현성이 글을 써놓은 나뭇조각만이 바위 위에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렇듯 소현성은 일반적인 요괴퇴치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조자의 도움이나 초월적 도구의 활용 등의 방법이 아닌 나무에 문자를 쓰는 독특한 방법을 통해 요괴를 퇴치한다. 이는 소현성의 초월성이 문자를 통해 표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태몽을 통해 볼 때¹⁶⁾ 소현성은 천상 영보도군¹⁷⁾이 지상에 하강한 인물이다. 따라서 그는 하늘에

14) 이화여자대학교 15권 15책본 『소현성록』(이하 『소현성록』) 권 4, 49쪽. 인용문의 현대어역 및 중심어휘의 한자 병기(併記)는 논문 필자의 주임. 이후 인용문에도 동일함.

15) 『용천담적기』(『대동야승』13권). 여기에서 채수의 막내동생이 요괴에게 죽임을 당하나, 채수는 기운이 완전하여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교적 세계관에 기반한 관념을 ‘사불범정(邪不犯正)’이라 할 수 있다.

16) 『소현성록』 권 1, 8~10쪽. 소현성의 태몽은 선인이 나타나, 천왕(天王)이 부친인 소광의 정성에 감동하고 영보도군이 소광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자원하여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해주는 내용이다.

17) 김승동 편, 『도교사상사전』,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423·638쪽 참조. 여기에서 영보도군은 도교의 최고신인 삼청(三清 : 옥청원시천존, 상청영보도군, 태청태상노군)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영보도군이 천상에서도 지고존재에 속한다는 것은 현성의 초월성이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원을 둔 초월 능력을 문자로써 발휘하여 요괴를 퇴치하는 것이다. 이때 요괴는 소현성에게 저항도 한 번 하지 못하고 소혈에 숨어 있다가 죽게 된다. 이는 (가)-2에서 소현성이 도착하기 전에 요괴가 도망가는 것과 함께, 소현성이 요괴보다 절대적인 우위의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요괴퇴치담[1]은 소현성이 초월성의 절대적 우위에서 요괴를 일방적으로 제거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2) 소운성의 요괴퇴치와 초월성의 층위

요괴퇴치담[2]는 소운성의 혼사로 인한 중심 갈등이 종료된 이후에 나타난다. 혼사갈등이 종료된 후 운성은 칠성참요검(七星斬妖劍)을 얻고 나선 유람길에서 요괴를 퇴치하게 된다. 다음은 요괴퇴치담[2]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 (가) 운성이 부친의 숙소에서 신검(神劍)을 얻고 유람을 떠나다.
- (나)-1 밤이 늦어 계명산 송간사에 도착한 운성이 객실을 내줄 것을 요청하자 승려들이 객실에 요괴가 나온다고 말하다.
- 2 승려들의 만류에도 객실로 들어간 운성은 신검으로 요괴 넷을 차례로 물리치고, 마지막 요괴와 새벽녘까지 치열하게 싸워 힘겹게 물리치다.
- (다)-1 한 촌가의 노인이 운성에게 딸과의 혼인을 청하다.
- 2 운성은 여인이 요괴임을 알고 허락해 소부로 데려와 신검으로 죽이다.

요괴퇴치담[2]의 서사단락은 위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는 운성이 요괴 퇴치의 중요 수단인 신검(神劍)을 얻어 유람을 떠나는 내용이고, (나)는 계명산 송간사의 다섯 요괴를 퇴치하는 내용이며, (다)는 구미호 요괴를 퇴치하는 내용이다.

(가)에서 운성은 부친의 숙소에서 천룡(天龍)의 울음소리를 듣고 신검을 발견한다. 운성의 출생 전, 현성은 대상노군에게서 “칼 임자는 구름 아래 별[雲星]이라”¹⁸⁾는 말을 듣고 신검을 증여받는데, 문인의 가문에 무반(武班)이 옳지 않다고 여겨 숙소에 감춰둔다. ‘칠성의 기운으로 요괴를 베는 검’이라는 의미를 지닌 신검의 명칭 자체는 요괴퇴치의 신물임을 표징하고 있다. 신검이 천룡의 울음소리로서 스스로의 존재를 알려, 운성으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는 것은 신검의 초월성에 의한 신이(神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신검은 천신(天神)이 증여한 것으로써, 운성의 초월능력과도 연결된다. 이는 다른 형제들은 들지도 못하는 신검을 운성이 한 손으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신검의 명칭에 나타난 칠성(七星)과 운성의 태몽¹⁹⁾에 나타난 삼태성(三台星)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운성의 초월적 능력은 천상의 성신(星辰)에 원천을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유람을 떠난 운성이 다섯 요괴를 퇴치하는 내용이다. (나)-1에서 운성은 계명산에 도착하여 사악한 눈빛을 발산하는 암수 한 쌍의 호랑이를 손으로 때려잡고, 밤이 늦어 송간사라는 절에서 하룻밤을 묵으려 한다. 그런데 그곳의 중들이 객실은 있으나 요괴가 나오고 그곳에 묵은 손님들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하여 (나)-2에서 운성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깨비이다. 세상의 군자가 어찌 요괴를 피하겠는가? 너희 빨리 객당을 가리켜라. 내가 홀로 가서 요괴를 죽이고 너희의 절을 평안하게 하리라.”²⁰⁾고 하며 객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운성은 객실로 들어오는 꿩요괴, 흰여우요괴, 검은뱀요괴, 거북요

18) 『소현성록』 권 9, 11쪽.

19) 『소현성록』 권 5, 55쪽. 운성은 모친이 삼태성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나는데, 이는 운성의 존재본원이 천상의 삼태성임을 나타낸다.

20) 『소현성록』 권 9, 16쪽.

괴, 돌사자요괴를 참요검으로 차례차례 베어 죽인다. 운성의 요괴 퇴치는 뛰어난 무예실력과 요괴를 벨 수 있는 참요검의 영험(靈驗)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데 앞선 요괴퇴치담[1]에서 요괴가 현성에게 저항 한 번 못했던 것과는 달리, 요괴퇴치담[2]에서 운성은 요괴를 제어할 수 있는 주력(呪力)을 지닌 참요검을 사용하면서도 새벽녘까지 요괴와 치열하게 싸워 간신히 퇴치하고 있다.

(다)는 운성이 구미호 요괴를 퇴치하는 내용이다. (다)-1에서 운성은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한 촌가에 머물게 되는데, 집주인이 운성에게 딸과의 혼인을 청한다. 그런데 그 딸은 그 집의 여식을 잡아먹고 인형(人形)을 취하여 변신한 구미호였다. 구미호는 운성이 지나는 것을 미리 알고 집주인을 속여 혼인을 주선하게 하고, 운성에게 죽은 다섯 요괴의 복수와 함께 운성의 존재본원인 삼태성(三台星)의 정기를 취하려 한다. 운성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혼인을 청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점을 쳐서 “길 한 가운데 호복사(狐伏在)”²¹⁾란 점괘를 얻는다. 이후 (다)-2에서 운성은 집주인의 딸이 둔갑한 요괴라는 것을 꿰뚫어보고, 혼인을 허락하고 집으로 데려온다. 집에 도착하자, 구미호는 현성의 호통에 본 모습이 드러나고 운성이 참요검으로 구미호를 베어 죽인다.

이상에서 요괴퇴치담[2]의 요괴들은 두려움 없이 운성과 맞서고, 오히려 운성을 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현성이 싸우지 않고 문자(文字)로서 손쉽게 요괴를 제거하는 것과는 달리 운성은 요괴를 제어하는 참요검을 사용하면서도 온 힘을 다해 싸워 힘겹게 요괴를 퇴치한다. 이러한 초월능력의 차이는 현성과 운성이 지닌 초월성이 각각 다른 층위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소현성록』 권 9, 24쪽.

3) 소현성·소운성의 요괴퇴치와 초월성의 층위

요괴퇴치담[3]은 소운명의 혼사로 인한 중심 갈등이 종료되어 집안이 평안을 되찾은 이후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소현성은 아들 모두를 데리고 태산과 형산으로 유람을 떠난다. 그 도중에서 요괴를 퇴치하는데, 소현성과 소운성이 요괴에 대한 각기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요괴퇴치담[3]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현성이 아들과 함께 형산과 태산을 유람하다 기운이 편지 못해 숙소에 머물다.
- (나)-1 운성 형제들이 유람하다 요괴의 소혈을 발견하고 불을 지르다.
-2 운성 형제들은 분노한 요괴들의 공격을 감당치 못하고 숙소로 도망쳐 오다.
- (다)-1 운성 형제를 쫓아온 요괴들이 현성을 보고 놀라 무릎을 꿇다.
-2 요괴들은 현성의 교화(教化)의 말과 제요가(制妖歌) 듣고 감화되어 물러나다.

요괴퇴치담[3]의 서사단락은 위와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는 요괴퇴치담[3]의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나)는 운성이 형제들과 요괴를 퇴치하려다가 실패하는 내용이며, (다)는 현성이 요괴를 제어하는 내용이다.

(가)에서 현성은 아들과 함께 형산과 태산으로 유람을 떠난다. 현성은 십여 일 동안 산수를 구경하고 글을 지으며 유람을 하다가, 하루는 기운이 편지 못해 숙소에 머물게 된다. 이에 운성과 세 형제들만이 다시 유람을 하고, (나)에서와 같이 요괴퇴치에 실패하게 된다.

(나)-1에서 운성은 세 형제들과 함께 유산하다가 요괴의 소혈을 발견한다. 그런데 운성은 요괴를 퇴치하려는 형제들을 만류한다. “일월정기(日月精氣)를 흡수(稟受)하여 예사롭게 영민한 부류가 아니며, 또한 천하를 유

람하여 일찍 요괴의 기운을 알아보는”²²⁾ 운성은 그곳의 요괴가 강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혈에 있던 요괴는 그곳의 산신(山神)을 조종하여 수하로 삼을 만큼 강한 존재로 묘사된다. 운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괴의 소혈에 불을 지른다. (나)-2에서 자신들을 해하려 함에 분노한 요괴들은 운성 형제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운성 형제들은 요괴의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현성이 있는 곳으로 힘겹게 도망간다. 이때 운성은 다친 동생(운의)을 버려두고 만형(운경)만을 업고 요괴를 피해 아버지 곁으로 도망간다. 이는 운성조차도 여러 형제들을 지키며 싸울 수 없을 만큼 요괴의 초월적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는 소현성이 요괴를 제어하는 내용이다. 현성은 요괴를 피해 도망쳐 온 아들들을 방안으로 들여보낸 후 마루에 단좌하고, 운성이 그 곁을 지키며 기다린다. (다)-1에서 운성 형제를 쫓아온 요괴들은 현성을 보고는 놀라서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요괴들은 운성에게 무죄한 본인들의 소혈을 불 지르려 한 뜻을 묻고, 이에 대하여 운성은 “너희들은 산간 요물로서 태산에 들어와 오악의 영험함을 더럽히니 내 천명을 받아 너희 소혈을 평정한 것이라”²³⁾고 답한다. 운성의 말에 분노한 요괴들은 “우리들이 비록 그대를 해치지 못하고 영보도군께 무릎을 꿇으나 그대의 여러 형제의 생사(生死)는 우리의 주머니 속 물건을 처치하는 것과 같다”²⁴⁾고 말한다. (다)-2에서 현성은 운성과 요괴의 대치상황이 긴박해지자 요괴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의 은혜를 입어 장수(長壽)하고 도를 익혔으나 감히 군자의 거처를 범하지는 못하리니 일찍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의 공부(公步)가 모두 그림의 떡이 되리라”²⁵⁾라고 말하며 제요가를 부른다. 이를 들은 요괴들은 감화되어 현

22) 『소현성록』 권 12, 63쪽.

23) 『소현성록』 권 12, 66쪽.

24) 『소현성록』 권 12, 66~67쪽.

25) 『소현성록』 권 12, 67쪽.

성에게 사례하고 물러난다. (다)에서 운성과 맞설 정도로 강한 요괴가 현성을 보자마자 놀라 무릎을 꿇고 현성에게서 교화의 말과 제요가를 듣고 감화되어 물러난다는 것은 초월성에 있어 현성이 운성이나 요괴보다 차원 높은 층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운성과 요괴는 같은 층위의 초월성을 지녔기 때문에 상호 대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운성의 존재 근원이 천상의 성신(星辰)이라는 것과 요괴가 천은(天恩)을 입고 도(道)를 익혔다는 것에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운성의 형제들은 요괴와 대결할 수 있는 차원의 초월성을 지닌 인물들이 아니다. 그렇기에 요괴는 운성의 형제들을 주머니 속의 물건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요괴퇴치담[3]에서는 인물들이 초월성의 차원에 따라 각각 다른 층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현성과 운성의 요괴퇴치양상과 초월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현성과 운성은 요괴를 퇴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요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며, 요괴 역시 현성과 운성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는 현성과 운성, 요괴퇴치담[3]의 요괴와 요괴퇴치담[1], [2]의 요괴들이 지닌 초월성의 층위가 각각 다름을 나타낸다.

이러한 초월성의 층위에 따라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유교사상에 입각한 현성의 초월성인 ‘신성(神聖)’이고, 둘째는 전통종교 관념에 입각한 운성의 초월성인 ‘신이(神異)’이며, 셋째는 요괴의 초월성인 ‘괴이(怪異)’이다. 그리고 ‘신성’은 소현성의 성인군자적 인물성격과 관련되고, ‘신이’는 소운성의 영웅호걸적 인물성격과 연관되며, ‘괴이’는 요괴의 부정적 성격과 상관관계를 갖는다.²⁶⁾ 이는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의 성격 및 층위가 현성과 운성의

26)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3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인물성격의 측면에서 작품 전체 서사와 유기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요괴퇴치담의 인물성격과 작품전체와의 상관성

2장에서는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현성과 운성의 요괴퇴치의 초월성과 그 층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원래, 유교에서는 요괴의 존재 자체가 부정된다. 그 이유는 공자의 ‘불어괴력난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은 말 그대로 요괴를 퇴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괴력난신’의 요체라 할 수 있는 ‘괴(怪)’에 해당된다. 그리고 ‘괴력난신’은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연의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왕편>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금기시되었다.²⁷⁾

그런데 유학자의 전형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소현성은 요괴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요괴를 퇴치하는 것은 요괴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 불어괴력난신이 어떻게 수용되어 있으며, 또 유학자로서 소현성의 인물성격과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가? 아울러 무인의 성격을 보여주는 소운성의 요괴퇴치는 인물성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성과 운성은 태몽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존재의 근원이 천상이라는 점에서 신화의 인물과 동일”²⁸⁾하고, 초월성 및 비범성

27) 박대복, 『『薛公瓚傳』의 筆禍와 怪異의 文學觀』, 『語文研究』140,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8, 280쪽 참조. 다만, 건국신화와 같은 작품의 경우에는 괴력난신에 포함되느냐(김부식), 되지 않는냐(일연·이규보) 하는 범주의 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채수는 <설공찬전>의 내용이 ‘괴이’하여 백성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며, 결국 파직되고 책은 금서가 되었다. 또 조선말 동학혁명의 교주 최시형이 주문과 부적으로 백성을 현혹시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것 등에서 공자의 ‘불어괴력난신’이 작품 가치평가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작품 전반에서 현성은 문인으로서 성인군자(聖人君子)의 성격이, 운성은 무인으로서 영웅호걸(英雄豪傑)의 성격이 나타난다. 그리고 요괴퇴치 과정에서도 현성과 운성의 초월적 능력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초월성과 인물의 성격이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요괴 퇴치에 나타난 초월성과 인물성격의 관련성을 살피고 작품 전체와의 상관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신성(神聖)의 초월성과 성인군자(聖人君子)

서사 전반에 걸쳐 “현성은 철저히 수신(修身)에 전념하고 당대의 유교 이념을 수호하는 유학자의 전형”²⁹⁾을 보여준다. 현성은 아들로서는 혼정신성(昏定晨省)과 사시문안(四時問安)으로 모친을 섬기는 지극한 효성을 지닌 인물이다. 남편으로서 세 부인과의 부부관계에서 있어서 중용의 덕을 보여주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인물이며, 신하로서는 치민(治民)을 잘 함으로서 그 도리를 다하는 인물이다. 또한 친구로서 신의(信義)를 지키고, 아버지로서 유교적 도덕론에 따라 자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는 인물이다. 이렇듯 작품 전반에 걸쳐 현성은 오륜법도(五倫法度)를 실천하고, 수신(修身)과 제가(齊家), 치민(治民)을 성취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성은 주변인물로부터 덕성(德性)이 매우 뛰어난 성인군자(聖人君子)로 평가된다. 현성은 어릴 적부터 “인사(人事)가 숙성하고 성효(誠孝)가 출천하여 (중략) 사시문안과 행실이 소학(小學)보다 더한 일이 많으니”³⁰⁾라고 묘

28)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님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4쪽.

29)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2쪽.

30) 『소현성록』1권 14~15쪽.

사된다. 그리고 모친으로부터 “내 아이는 인증성인(人中聖人)이오 오작(烏鵲) 가운데 봉황 같아서 속인이 바랄 바가 아니라”³¹⁾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숙부들로부터 “너를 대하면 우리 몸을 자연히 돌아보아 수련하고, 네 말을 들으면 성교를 대함과 같으니 실로 공맹의 후신이 아니면 이렇지 못하리라.”³²⁾라고 평가된다. 소현성에 대한 이러한 평가들은 소현성의 덕성(德性)이 공자와 맹자처럼 주변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남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성의 덕성은 요괴퇴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요괴퇴치담[1]에서 요괴는 현성을 성인(聖人)이라 지칭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간다. 유교에서 성인은 “덕(德)을 완성하고 하늘의 도(道)를 체득하여 문명과 규범을 세운 사람”³³⁾으로서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성현(聖賢)들을 의미하는 한편 “천지우주와 합일하는 종교적·신비적 존재”³⁴⁾로서 설명된다. 즉 성인은 “천(天)과 인간을 매개하는 우주축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우주 만물을 통리(通理)하는 신인(神人)의 경지”³⁵⁾를 보여주는 것이다. 요괴의 말에 나타난 성인과 요괴퇴치 과정에서 보여주는 현성의 인물성격은 이러한 종교적·신비적 존재로서 성인의 성격을 보여준다. 그리고 요괴가 도망가는 것은 유교에서 말한 “요망함은 덕을 이기지 못하고 사악함은 정의를 치지 못한다는 하늘의 도(道)”³⁶⁾에 의한 것으로서 요괴가 현성의

31) 『소현성록』1권 58쪽.

32) 『소현성록』4권 68쪽.

33) 박미라, 『중국 유교의 이상 인간형 -聖인과 君子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7,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1, 227쪽.

34) 李基東 著·鄭容先 譯, 『東洋三國의朱子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5, p82

35) 李成珪, 『道敎의 御用化 論理와 그 形式』, 『歷史上의 國家權力과 宗教』, 一潮閣, 2000, 75쪽 참조.

36) 왕부(王符), 『잠부론』, <무열(巫列)>, ‘妖不勝德 邪不伐正 天之經也’ 여기에서 經은 ‘義’ 또는 ‘道之常’으로 해석된다.

덕성(德性)을 이기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종교적 성인으로서 현성이 지닌 초월성 즉 ‘신성’의 성격을 보여준다. “하늘과 관계 맺음으로써 인간이 제한성을 벗어나 신성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신앙은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³⁷⁾이다. 유교의 하늘은 일반 종교의 신(神) 관념이 아닌 천리(天理)로서,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 자체”³⁸⁾라는 점에서 초월적이며, 인간 내면의 덕성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내재적이다. 즉 유교에서는 인간이 내면의 덕성을 통해 하늘과 관계맺음으로서 신성성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성의 ‘신성’은 인간 내면의 덕성을 통해 하늘과 관계 맺는다는 점에서 내재적 초월성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현성은 나무에 글을 써서 요괴를 퇴치한다. 현성이 나무에 글을 쓰는 것은 부적을 붙이는 것과 유사한 일종의 주술적(呪術的) 행위라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술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이나 행위를 통해 초월성을 불러일으키는 행위”³⁹⁾로서 “주술의 행위자나 행위자의 윤리적 태도는 중요하지 않고 행위의 형태만이 중요하게 여겨진다.”⁴⁰⁾ 그러나 현성의 요괴퇴치는 행위의 형태가 아닌 행위자의 덕성이 중요시 된다. 이는 현성의 요괴퇴치가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 현성의 덕성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성이 나무에 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글이라는 것이 문(文)에 해당하며, 조선시대의 문인

37)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64쪽.

38) 김성원, 『“보스톤 유교”의 초월성 개념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7, 105쪽.

39) 박대복, 『朝鮮朝 敍事文學에 受容된 詛呪와 天觀念(Ⅰ) -〈謝氏南征記〉·〈癸丑日記〉·〈仁顯王后傳〉을 中心으로-』, 『語文研究』108,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0, 56쪽. 참조.

40)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19, 브리태니커·동아일보, 1993, 655쪽 참조. 즉 주술 행위는 일정한 형식만 따르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론적인 집단인식을 기초로 한다.

은 사대부로서 유학자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성의 글에는 유학(儒學)의 도(道)가 담겨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도에는 원래 형상이 없지만 성인이 제작한 글을 통해 현현할 수 있다”⁴¹⁾는 점에서 현성의 글은 덕성의 내재적 초월성을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글은 ‘신성’의 형상화라 할 수 있으며, ‘요불승덕(妖不勝德)’이라는 하늘의 도와 연결되는 것이다. 『소현성록』이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성인군자의 내재적 초월성인 현성의 ‘신성’은 다른 초월성보다 차원 높은 충위를 보여준다. 이는 요괴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저항 한 번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성은 요괴를 퇴치한 일에 대하여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이는 공자의 ‘불어괴력난신(不語怪力亂神)’을 ‘괴력난신(怪力亂神)’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글자의 뜻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다. 유학자에게 있어 “공자의 ‘불어괴력난신’은 절대적 권능을 지닌 전범(典範)으로서 작품의 창작과 비평의 절대적 원칙”⁴²⁾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유교적 작품에서는 괴력난신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교사상의 관점에서는 ‘괴력난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금기시한다는 것이다. 『소현성록』 역시 유교적 세계관에 철저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불어괴력난신’의 절대적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소현성록』은 괴력난신에 해당하는 요괴를 다루고 있다. 비록 퇴치의 대상일 지라도 요괴의 존재 자

41) 진소영, 『이퇴계의 『성학십도』에 담긴 시적 지혜와 형상적 사유』, 『한국문화』4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34쪽 참조. 여기에서는 이퇴계의 『성학십도』를 조형예술이 아닌 문자의 관념성·사상성·정신성 등을 통해 도를 형상화한 것으로 파악하여, 일반 종교의 형상이 강한 외재적 초월성을 갖추고 있음에 비해, 『성학십도』는 주로 내재적 초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문자의 관념성·사상성·정신성이 내재적 초월성의 한 속성임을 알 수 있다.

42) 박대복, 『『薛公瓚傳』의 筆禍와 怪異의 文學觀』, 『語文研究』140,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8, 275~276쪽.

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성이 요괴퇴치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불어괴력난신’에 대한 글자 뜻 그대로의 해석을 보여준다. 이는 ‘괴력난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금기시 했던 기존의 ‘불어괴력난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소설적 변용으로서 현성의 성인군자적 성격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신이(神異)의 초월성과 영웅호걸(英雄豪傑)

서사 전반에 걸쳐 소현성이 문인(文人)으로서 성인군자의 면모를 보여준다면, 운성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등 호탕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니고, 이로 인해 여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점차 “용맹함과 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⁴³⁾ 즉 영웅호걸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운성은 8세까지 글자를 배우지 않아 형제들로부터 “셋째는 팔세가 되었으나 윗 상(上)도 모르니 진짜 사람 가운데 금수와 같아 동기라 하기 더럽다”⁴⁴⁾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운성은 “장서각에 가서 책을 상고하다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병서(兵書)를 한 번 펴보고 천고(千古)의 깊은 뜻을 깨달아 가만히 가지고 서당에 돌아와 서너 달을 공부하자 이미 소아로서 가질 수 있는 모략을”⁴⁵⁾ 완전히 터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운성에게 천성적으로 무인적(武人的)·영웅적(英雄的) 기질이 있음을 나타낸다. 문인의 가문에 무반이 옳지 않다는 부친의 염려에 운성은 무인의 기운을 줄이고 유학에 힘써 3년 만에 만권의 책을 통달하여 문리(文理)를 깨우친다. 이로서 운성은 “성정(性情)이 총명(聰明)하고<…> 의논이 상쾌

43) 정선희, 앞의 논문, 52쪽.

44) 『소현성록』 권 5, 56쪽.

45) 『소현성록』 권 5, 56쪽.

(爽快)하며 말이 호탕하였으나 마음이 철석(鐵石)같아서 뜻을 정한 후에는 돌이키지 않으니”⁴⁶⁾라는 호평을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방탕(放蕩)하고 정직하지 않다”⁴⁷⁾거나, “너무 발월(發越)하여 유생(儒生)의 온용(溫容)한 행실(行實)이 적다”⁴⁸⁾라는 악평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적 평가들은 운성이 지닌 덕성의 불완전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운성의 무인적 기질을 반증한다. 또한 운성은 14세에 “신장(身長)이 팔척 오촌이고<…> 힘은 능히 구정(九鼎)을 들 수 있고 모략은 손자(孫子)와 오기(吳起)보다 뛰어나며, 용맹은 염파(廉頗)와 이목(李牧)보다 더하며”⁴⁹⁾라고 묘사되어 영웅호걸적 면모를 보여준다. 운성의 영웅호걸적 면모는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운남국의 모반으로 현성과 함께 출전했을 때에는 절정의 모습을 보여준다. 운성은 출정할 때 선비의 옷을 벗고, 장수의 복색에 칠성참요검을 들고 청충만리운을 타고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영오(英悟)한 빛과 빼어난 영웅(英雄)이 만인 가운데 솟아나 은은한 것이 용(龍)과 같으니”⁵⁰⁾라고 묘사되며, 한나라의 무장인 한신(韓信)과 같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운성은 운남국과의 첫 교전에서 네 명의 적장(敵將)과 싸워서 승리하고, 운남국의 자객을 방비하며, 화평을 논하는 자리에서 운남국의 왕후인 팽환과 재주를 겨뤄 이기는 등 용맹한 활약을 펼쳐 운남국 평정에 큰 공을 세운다.

이상의 작품 전반에 나타난 운성에 대한 묘사나 평가 및 활약상은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을 보여준다. 요괴퇴치담[2]는 운성의 무용담(武勇談)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기능

46) 『소현성록』 권 5, 63쪽.

47) 『소현성록』 권 5, 62쪽.

48) 『소현성록』 권 5, 70쪽.

49) 『소현성록』 권 5, 62쪽.

50) 『소현성록』 권 11, 12쪽.

을 한다. 요괴퇴치담[2]에 나타난 운성의 초월능력은 타고난 용력 및 신검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요괴의 정체를 파악하는 능력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태몽을 통해 살펴본 운성의 천상 존재본원 즉 삼태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영웅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천상존재의 지상하강에서 비롯된 주인공의 초월성과 궤를 같이 한다. 영웅소설에서 “영웅의 출생은 대개 천상존재의 적강(謫降)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천상적 존재의 하강은 지상적 존재로서 비범성(非凡性)과 신이성(神異性) 등으로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유”⁵¹⁾하고 있으며, 이는 건국신화에서 건국영웅들의 초월성의 근간이 되는 신성혈통 및 신이출생의 변형적 계승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운성의 초월성 역시 건국영웅들의 초월성과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통 종교의 신(神) 관념을 반영한 ‘신이’라 할 수 있다.

성인군자인 현성이 덕성에 내재된 ‘신성’을 통해 싸우지 않고도 요괴를 퇴치하는 반면 운성은 ‘신이’를 바탕으로 신검의 주력(呪力)과 무예를 통해 요괴를 퇴치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칠성참요검은 현성이 태상노군에게서 받은 것으로서, 그 명칭에서부터 초월성을 지니고 있으며 운성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다. 신적 존재인 태상노군이 직접 신검을 증여한다는 것은 운성이 지닌 ‘신이’의 외재성을 보여준다. 현성의 ‘신성’이 덕성을 통해 천리와 관계 맺음으로서 내재적 초월성의 성격을 보여준다면, 운성의 ‘신이’는 모든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행위적 존재인 신(神)으로부터 부여 받은 것으로서 외재적 초월성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⁵²⁾

51) 김용기, 『인물 출생담을 통한 서사문학의 변모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72쪽.

52) 문병도, 『유가사상에 있어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39, 동양철학연구회, 2004, 385~387쪽 참조. 여기에서는 유교와 서양 전통종교를 비교하면서, 유교는 내재초월성을 서양전통종교는 외재초월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재초월성은 초월성은 근원인 天理와 인간이 상호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는 특성을 보이고, 외재초월성은 초월성의 근원인 神과 인간의 일방향성 관계를 지니는 특성을 보인다고

그런데 운성의 요괴 퇴치에는 본인의 영웅성을 과시하려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이는 생사를 확인하러 온 승려들에게 “너희들이 거짓말로 사람 죽이는 요괴 있다고 하더니, 내가 오늘 와서 보니 사람에게 죽는 요괴가 있더라”⁵³⁾라고 말하거나 유람이 끝나고 소부로 돌아와 “부친을 모시고 들와와 많은 이야기를 펼쳐 계명산에서 다섯 요괴 죽이며 두 악호를 죽인 사연과 강도를 물리치고 부녀자를 구한 사연을 일일이 고하”⁵⁴⁾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영웅성 과시의 측면은 구미호 요괴의 퇴치에서도 나타난다. 운성은 이미 구미호 요괴의 정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굳이 소부로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친에게 보여 정체를 알아보시는지 알기 위해 요괴를 소부로 데려온다는 점은 자신의 영웅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기 때문이다.⁵⁵⁾ 즉 요괴퇴치담(2)에서 운성은 영웅성 과시를 위해 요괴를 퇴치하고, 이를 본인의 무용담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 역시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신성(神聖)·신이(神異)의 층위와 작품전체와의 상관성

요괴퇴치담[1], [2]가 각각 요괴퇴치에 나타난 현성과 운성의 초월성 및 인물 성격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면, 요괴퇴치담[3]은 요괴퇴치담[1], [2]의

하였다.

53) 『소현성록』 권 9, 19쪽.

54) 『소현성록』 권 9, 36쪽.

55) 『소현성록』 권 9, 24쪽. 운성의 영웅성 과시는 유람 도중 오악신과 대결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오악신은 요괴가 아니라 자만심이 강하고 힘이 센 장사이다. 운성은 오악신의 자만을 참지 못하고 씨름 대결을 해서 이기고, 양심을 품은 오악신의 무리의 공격에 그들을 모두 죽인다. 이러한 운성의 행위는 군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지 영웅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운성이 집에 돌아온 후 유람하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악신과의 대결에 대해서는 숨기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요괴와는 다른 성격의 요괴가 등장하고, 이에 대한 현성과 운성의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줌으로서 두 인물의 초월성과 인물성격의 차이를 보여준다.

요괴퇴치담[3]의 요괴는 2만년 묵은 표범의 정령, 1만 5천년 묵은 곰의 정령, 8천 60년 묵은 이리의 정령으로 묘사된다. 정령은 인간을 비롯한 일체의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에 정령(anima)이 깃들어져 있다고 보는 ‘애니미즘(animism)’ 혹은 ‘만유정령설(萬有精靈說)’⁵⁶⁾의 인식에서 비롯된 원시종교의 숭배 대상 가운데 하나로 파악된다. 정령은 또한 고전소설 작품 속에서 주인공에게 유교덕목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주는 효용적 가치를 지닌 존재⁵⁷⁾로 인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요괴퇴치담[3]의 요괴는 민간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도를 닦는 존재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요괴퇴치담[3]의 요괴는 요괴퇴치담[1], [2]에 나타난 부정적인 요괴와는 다른 차원의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성은 이러한 요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부정적으로만 바라본다. 이는 운성이 무죄한 자신들을 공격한 이유를 묻는 요괴에게 天命을 받아 소혈을 削平한 것이라 답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신이’의 초월성을 지닌 운성은 요괴의 기운을 알아볼 수는 있으나, 요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여 목숨을 다해 싸우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현성은 요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하늘의 은혜를 입어 도를 얻은 존재로 바라본다. 따라서 현성은 요괴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화의 말과 제요가로서 감화시킨다. 이에 요괴들은 화내던 마음을 풀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성인의 후덕(厚德)을 입

56) 유정일, 『《企齋記異》의 傳奇小說의 特性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9쪽.

57) 위의 논문, 101쪽. 여기에서는 <서재야회록>에 나타난 문방사우의 정령을 주인공에게 신의(信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어, 방자한 죄를 용서해주시고 도 닦음을 권하시니 은혜 난망(難忘)이오”⁵⁸⁾라고 말하며 사례하고 물러난다. 현성이 교화의 말과 제요가로서 요괴를 감화시키는 것은 요괴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성의 덕성에 내재된 ‘신성’의 초월성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운성이 퇴치하지 못한 요괴를 현성이 제어한다는 것은 현성의 ‘신성’이 운성의 ‘신이’나 요괴의 ‘괴이’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층위에 있음을 나타낸다. 유교사상의 입장에서 ‘신성’은 성인군자인 현성의 덕성을 통해 천리와 연결됨으로 차원 높은 층위를 보인다. 이에 반하여 전통 종교에 입각한 ‘신이’는 영웅호걸인 운성의 덕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천리와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성’보다 낮은 층위를 보인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초월성의 층위는 『소현성록』이 영웅호걸보다는 성인군자의 인물성격을 지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현성과 운성을 비교한 주변 인물들의 평가나 문인의 가문에 무반이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현성의 태도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소현성록』이 영웅호걸보다 성인군자의 인물성격을 지향한다는 것은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성과 운성은 요괴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요괴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때론 긍정적인 성격을 지닐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요괴가 ‘괴이’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서 현성과 운성의 요괴에 대한 상이한 태도는 조선사회의 유학자들이 지닌 ‘괴이’에 대한 “양면적 인식”⁵⁹⁾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괴이’에 대

58) 『소현성록』 권 12, 67쪽.

59) 조현설,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한국어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60~261쪽 참조. 여기에서는 사대부들의 일기에서 날마다 꿈 이야기를 하고, 점을 치고, 절을 드나들며 독경을 하기도 하고, 불승들과 적지 않은 교유를 가지기도 하며, 병이 나면 민간의 주술적 비방을 사용하거나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는 하는 등 사대부로서 비합리적 민속전통에 거부반응을

한 유학자들의 양면적 인식은 유교의 종교적 한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회에서 유교는 치국의 도(道)로서 정치적·사회적 효용이 있었지만 인간구제의 종교적 기능면에서는 그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에 그 역할을 ‘괴이’로 여겨지던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 등이 분담하고 있었다. 즉 유교는 주로 “정치이념, 교육과 학문, 도덕적 지침 등으로서 위정자들에게는 정의로운 통치이념을 제공하고, 일반사람들에게는 올바르게 현실 삶을 살아가도록 도덕적 지침을 제공했다면”⁶⁰⁾ ‘괴이’로 여겨지던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은 개인적 신앙의 차원에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복락을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차원에서 불교와 도교, 민간신앙은 더 이상 부정적 ‘괴이’와는 다른 차원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4. 결론

이 글은 『소현성록』에서 중심 갈등과 큰 연관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여겨졌던 요괴퇴치담이 작품 속에 한 번도 아닌 세 번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요괴퇴치의 양상과 초월성의 충위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요괴퇴치담의 인물성격과 작품전체와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요괴퇴치담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소현성록』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은 유교사상에 입각한 현성의 ‘신성’과 전통 종교 관념에 입각한 운성의 ‘신이’, ‘괴력난신’으로서 부정되는 요괴의 ‘괴이’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신성’은 내재적 초월성으로서 현성

보이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호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60) 오지섭, 『한국 유·불 공존 의식의 배경에 관한 연구 :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의 종교 이해에 근거하여』,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82~183쪽 참조.

의 성인군자적 성격과 연관되고, ‘신이’는 외재적 초월성으로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과 관련되며, ‘괴이’는 인간에게 부정적인 요괴의 성격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초월성의 층위와 인물성격의 상관관계에 따라 요괴퇴치담[1]은 현성이 덕성에 내재된 ‘신성’을 통해 요괴를 퇴치하고, ‘불어괴력난신’의 글자의 뜻 그대로 요괴퇴치를 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현성의 성인군자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에 반하여 요괴퇴치담[2]은 운성이 ‘신이’를 통해 요괴를 퇴치하고, 이를 무용담(武勇談)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을 부각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즉 작품 전반에 나타난 현성의 성인군자적 성격과 운성의 영웅호걸적 성격을 종합적이며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괴퇴치담[3]은 운성과 현성이 지닌 초월성의 이원적 성격을 바탕으로 ‘신성’과 ‘신이’의 층위를 보여주고, 요괴퇴치담 [1], [2]와는 다른 성격의 요괴가 등장함으로써 ‘괴이’에 대한 양면적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초월성과 인물성격의 관계는 비단 『소현성록』 한 작품만이 아니라, 유교적 세계관과 초월적 세계관을 함께 보여주는 가문소설의 인물성격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소현성록』,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15권 15책본.
 王符, 『잠부론』.
 김승동 편, 『도교사상사전』,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6.
 한국브리태니커,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 사전』 19, 브리태니커·동아일보, 1993.

2. 논문

- 김성원, 「“보스틴 유교”의 초월성 개념에 관한 연구」, 『종교연구』, 한국종교학회, 2007, 105쪽.
 김용기, 「인물 출생담을 통한 서사문학의 변모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72쪽.
 문병도, 「유가사상에 있어서 초월성과 내재성의 문제」, 『동양철학연구』 39, 동양철학연구회, 2004, 385~387쪽.
 박대복, 「『薛公瓚傳』의 筆禍와 怪異의 文學觀」, 『語文研究』140,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8, 274~281쪽.
 ———, 「超越性的 二元的 認識과 天觀念」, 『語文學』75, 韓國語文學會, 2002, 172쪽.
 ———, 「朝鮮朝 敘事文學에 受容된 詛呪와 天觀念(Ⅰ) -〈謝氏南征記〉·〈癸丑日記〉·〈仁顯王后傳〉을 中心으로-」, 『語文研究』108,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0, 56쪽.
 박미라, 「중국 유교의 이상 인간형 -聖人과 君子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7,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2001, 227쪽.
 박영희, 「〈蘇賢聖錄〉 連作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3, 147~148, 246~247쪽.
 오지섭, 「한국 유·불 공존 의식의 배경에 관한 연구 :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의 종교 이해에 근거하여」, 西江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2001, 182~183쪽.
 유정일, 「《企齋記異》의 傳奇小說의 特性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99, 101쪽.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4쪽.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42, 52쪽.

조현설, 「16세기 일기문학에 나타난 사대부들의 신이담론과 소설사의 관계」, 『한국어 문학연구』51,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8, 260~261쪽.

진소영, 「이퇴계의 『성학십도』에 담긴 시적 지혜와 형상적 사유」, 『한국문화』4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34쪽.

3. 단행본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64쪽.

이기동 저·鄭容先 역, 『東洋三國의朱子學』, 成均館大學校出版部, 1995, 82쪽.

이성규, 『歷史上의 國家權力과 宗教』, 一潮閣, 2000, 75쪽.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178~183쪽.

Abstract

A Study on Transcendence Shown in the Stories of Exorcising the
Ghost in 『Sohyeonseongrok』

Park, tae-bok·Kang, woo-kyu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stories to exorcise the ghost considered to have little relation with the main conflict appear up to three times in 『Sohyeonseongrok』 and considers the significance and function of the stories to exorcise the ghost by analyzing the aspects of exorcising the ghost and the layers of transcendence and examining its correlation with the personality of the characters appearing in the stories to exorcise the ghost and also the whole work.

Transcendence shown in the stories of exorcising the ghost in 『Sohyeonseongrok』 can be divided into three kinds: ‘divinity’, ‘mysteriousness’, and ‘extravaganza’. Among these, ‘divinity’ is connected with the noble personality of Hyeonseong, ‘mysteriousness’ is related with the heroic personality of Unseong, and lastly, ‘extravaganza’ is associated with the personality of the ghost.

It is thought that the stories of exorcising the ghost in 『Sohyeonseongrok』 play a role in exposing Hyeonseong’s noble personality and Unseong’s heroic personality expressed over the whole work synthetically as well as intensively.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transcendence and personality of characters can be one of the ways to analyze personality of characters in Korean family novels showing the transcendent world view as well as Confucian world view, not just in 『Sohyeonseongrok』.

Key-words : transcendence, divinity, mysteriousness, extravaganza, saint,
hero

박대복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151-775)서울 관악구 행운동 우성아파트 103-1405

전화번호 : 02-820-5165, 010-9069-1739

전자우편 : taebok@cau.ac.kr

강우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133-837)서울 성동구 송정동 95-41

전화번호 : 02-6003-1434, 010-7997-8452

전자우편 : cuemi@naver.com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0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
--